

→ 기사모음

- 전체기사보기
- 호별보기
- 종이신문(PDF)
- 포토뉴스

→ 인터뷰

- 지면인터뷰
- 영상인터뷰

→ 알뜰시장

- 사고팔고
- 스터디/बाट디
- 구인구직

→ 수험자료실

- 저명교수강좌
- 유명강사강좌
- 공부방법론
- 기출자료실 ▼
- 판례DB ▼
- 법령정보 ▼
- 합격수기
- 잉글리시월드 ▼

→ 오피니언

- 특별기고
- 법률산책
- 저명인사에세이 ▼

→ 고시준정보

- 고시학원 → 식당
- 서점 → 출판사

→ 회사소개 ▼

HOME >



등록일시 : 2012년 04월 20일 12시 22분

조회수 : 151

◀ 뒤로가기

🖨 기사프린트

📧 전체기사

### 고려대 ICR센터·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 20일, 경제법·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쟁점에 대해

고려대학교 혁신·경쟁·규제법센터(이하 ICR센터, 소장 유진희)는 20일 오후 2시부터 고려대 백주년 기념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경제법과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최근 쟁점”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정부 및 국내외 법학자, 법무법인과 기업인 등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한국경제법학회와 공동 주최하는 이날 세미나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 현황과 발전방향을 균형있고 심도있는 토론을 위한 자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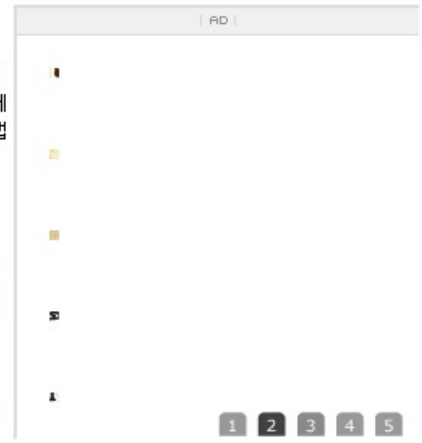
제1부에서는 “경제법의 최근 쟁점”을 논의한다. 이에 김대규 서울디지털대 교수가 “선불식 할부거래 규제에 관한 소고”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충성할인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의 검토”를 주제 발표한다.

제2부에서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최근 쟁점”을 살펴본다. 홍명수 명지대 교수의 “출자규제의 정당성 판단”에 이어 이동원 충북대 교수가 “기업집단 지배구조와 지주회사제도”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학계와 정부 실무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현행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토론한다.

특히 이날 세미나는 학계와 법조계의 참여가 활발한 가운데 경제력 억제시책을 학문적 관점에서 진지하게 짚어봄으로써 건전하면서도 발전적인 토론의 장을 제공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 남자만 클릭!-작은남자는 필수클릭!
- ▶초등2학년 딸 가슴이 벌써 붓긔~??
- 남성 발기 혁명! 수술NO 10분OK
- 팔자주름 한번 치료로 90살까지??
- ★수술없는질수속 집에서 쉽게하기
- 파격! 대명리조트 1230만원 특별분양!
- [속보]임플란트 하지마세요!!
- 난 언제쯤 결혼하게 될까? TEST

AD

## [포럼] '경제력집중 억제 쟁점' 세미나外

입력시간 : 2012.04.19 16:10:47 수정시간 : 2012.04.19 20:39:39



### ▶20일 '경제력 집중 억제 쟁점' 세미나

고려대 혁신·경쟁·규제법센터(ICR센터)와 한국경제법학회는 20일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경제법과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최근 쟁점' 세미나를 연다.

# [캠퍼스] 고려대 ICR센터, 한국경제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기사입력 [2012-04-19 12:05] , 기사수정 [2012-04-19 15:20]

📖 인쇄하기 | 📄 가 | 📄 가

🐦 트위터 | 📘 페이스북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전경.

[아시아투데이=류용환 기자] 고려대학교 혁신·경쟁·규제법센터(ICR센터)는 20일 서울 성북구 안암캠퍼스 백주년 기념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경제법과 경제집중 억제시책의 최근 쟁점'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국경제법학회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정부 및 국내·외 법학자, 법무법인 관계자, 기업인들이 참여한다.

1·2부로 나눠 진행되는 이날 세미나에는 '경제법의 최근 쟁점'을 논의하고 '선불식 할부거래 규제에 관한 소고', '기업집단 지배구조와 지주회사제도'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IRC센터는 "이번 세미나는 학계와 법조계의 참여가 활발한 가운데 경제력 억제시책을 학문적 관점에서 진지하게 짚어봄으로써 건전하면서도 발전적인 토론의 장을 제공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류용환 기자 fkgc@asiatoday.co.kr>